



## G20, 유로존 위기보다 日-美 재정절벽 현실화를 더 우려

박정희 선임연구원

- 지난 5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정책의 기초를 긴축에서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밝힘.
-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큰 만큼 재정 건전화 속도 조절을 통해 지나친 긴축을 경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, 역내 긴축 노력이 세계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.
  - 따라서 G20 국가들은 내년 2월 열릴 모스크바 회동 전까지 회원국별 사정을 고려한 균형재정 달성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계획임.
- 한편, 이번 G20 공동성명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문제, 유로존의 경제 개혁정책 이행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, 신흥 국가의 낮은 성장률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음.
  - 특히,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과 일본의 갑작스러운 재정 긴축을 통한 부작용인 이른바 ‘재정절벽’을 언급하며 급격한 재정긴축이 경제 회생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.
-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경제재정담당상은 G20에서 일본의 재정절벽을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 중 하나로 꼽은 만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‘적자국채 발행법안’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- 현재 일본 정치권은 총선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본 법안이 표류 중에 있음.
  -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신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는 반면, 자민당 등은 법안 찬성의 조건으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내세우고 있음.
- 이에 일본 언론들은 통상적으로 11월은 다음해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올해는 7개월 전에 만들어진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.

(산케이 외, 11/5)